

제 목 : ㈜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 '16.12.14(水)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함
-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 인가**로서 우리 은행산업 역사에 **새로운 경쟁**을 예고
- 케이뱅크 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7.1월말~2월초 (잠정) 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1. 인가내용 및 향후일정

-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오늘 인가함
- o 9.30일 본인가 신청후 두달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 * ① 자본금요건,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 사업계획, ⑤ 임직원요건, ⑥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임
 - *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그동안 은행 신설인가가 없었음

- □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 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 o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
-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주)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
 - * 다른 주주인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는 `15.11.29일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았음
- □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17.1월말~2월초(잠정) 본격 영업개시 예정
 -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은행은 영업을 개시해야 함
- ※ 카카오 은행은 현재 `16년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
- □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 * 금융감독원은 `17.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 또한,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의원)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

2.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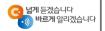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 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 ② 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 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함
-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을 강조
 -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 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
 - 은행 뿐 아니라 IT·벤처업계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
 -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각각 금융·IT 인력을 약 200여명 채용하였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IT Solution 업체 등과 협업중
 - 설립초기부터 창의적인 **IT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여,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영문화를 기반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시금석**으로 기능해 줄 것

- **4** 무엇보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 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관건
 - 정부는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임
 -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규율하는 입법에 국회도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림

[첨부]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모델 및 출시계획 (작성: 케이뱅크 은행)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1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경과

-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18)
-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15.9.7)
 - * 혁신성, 사업모델 안정성, 소비자 편익증대 등 사업계획 타당성에 50% 비중
- □ 예비인가 신청접수('15.9.30~10.1) 결과, 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15.10.1)
-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¹5.11.9)
 - *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위원장 포함), 외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명단을 비공개**
-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 * `15.11.27~29중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 □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 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출('15.11.29)
- 금융위원회는 同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을 **예비인가**('15.11.29)
- □ 이후 양 예비인가 사업자는 준비법인 설립, 자본금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작업** 진행('15.12월~')
- □ 케이뱅크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16.9.30)
- 금융감독원內 관련부서 합동 인가심사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하여 법상 인가요건 충족 심사 및 실지조사 진행('16.10~12월)
- □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인가**('16.12.14)

참고 2

케이뱅크 은행 일반현황

- □ (상호)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 ☐ (대표) 심성훈
- □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비동16층(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 □ (자본금) 2,500억원
- □ (임·직원) 이사 9명(사내 3명, 사외 6명) 등 약 200여명
- □ (주주 구성) 케이티,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에잇퍼센트,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DGB캐피탈,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Alipay(Hong Kong) Investment Limited,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민앤지 (총 21개사)
- □ (핵심 서비스)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빅데이터 기반), 간편심사 소액대출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활용), 체크카드, 직불 간편결제 서비스, 퀵송금 등
 - *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설립 이후 별도 인허가 신청 계획
- ☐ (영업 개시일) 2017년 1월말 이후(잠정)

참고 3

케이뱅크 은행 상품 및 서비스(안)

구분	상 품	내 용	특 정
수신 상품	디지털 혜택 정기예금	고객 선택시 디지털 음원이용권 등 혜택을 다양화하여 제공하는 상품	 모바일 시대에 부합하는 혜택 제공 음원 이외에 통신데이터 등으로 다양화 예정
	고금리 입출금 예금	요구불 예금 중 여유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전환 가능케 하는 상품	· 입출금 예금의 관리 효율성 도모 · 앱에서 간편하게 설정 가능
	우대금리 정기 예·적금	제휴사 상품 이용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제휴사 회원, 자동 이체 등 다양한 형태의 우대 금리 제공
역신 상품	중금리 개인신용 대출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를 활용한 중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 통신, 가맹점 매출정보 등 박태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 → 신용등급 정교화 통해 합리적인 금리 제공
	간편심사 소액대출	가입·심사절차가 간소화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소액대출	 ·신용등급 하락 없음 (제1금융권) ·대출 신청시 주주社 보유 정보 등으로 간편 심사
	우량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고객의 재직증명, 소득증명 등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 ^{주)} 기법을 활용해 심사
	예적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 비대면 신속대출
체크 카드	포인트 적립형	전업종 대상 포인트 적립형 체크카드	· 포인트 적립한도 무제한 · 포인트 적립대상 가맹점 제한 없음
	통신 캐시백형	통신요금 할인형 체크카드	· 업계 최고 수준 혜택 제공

^{*} 주) 고객이 직접 모바일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재직·소득 정보 수집,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소득 정보 수집 등)

구 분	상 품	내 용	특 정
송금	퀵송금	휴대폰번호 기반의 간편 송금	 모바일 송금 절차(클릭 수 등) 최소화한 간편 송금 수신인이 케이뱅크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송금 가능
고객 상담	24시간 상담 서비스	24시간 365일 Total Care Service* 제공 * 분실신고, 뱅킹 Help-desk, 상품가입/해지 상담 서비스 등	· 고객 상담내용 전수 분석(Text Analytics) 및 STT(Speech to Tex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이슈 대용 및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
	챗봇 (Chatbot) 서비스	채팅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상품안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 등 제공	· 머신러닝/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 (Chatbot) 서비스로 실시간 응답 등 고객만족도 제고
중장기 출시 예정 상품 ^{주)}	직불간편 결제	고객·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직불 결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카드망 대신 은행망 이용(VAN less) → 수수료 절감 · 가맹점 등록절차 간편
	원터치 모기지론	모바일 기반 으로 서류 제출 등을 최소화해 고객 편의성 을 극대화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주택 구매와 연계된 부가서비스 제공 ·정교한 권리조사체계로 비대면 채널 위험 최소화
	도모 어드바이저 서비스	고객의 투자성향·전략을 알고리즘화 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Open API 뱅킹	API를 통해 소비와 여신이 결합된 금융서비스* * 예) 부동산 증개 앱 內 케이뱅크 대출 신청 또는 쇼핑몰 앱 內 케이뱅크 결제 기능 이용 가능	·고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앱/웹內 에서 간편하게 케이뱅크의 금융
	핸드폰 기반 해외송금	해외 통신사 제휴 통한 전화번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 서렴한 수수료 및 편의성 제고

^{*} 주) 향후 감독당국의 상품 심사 등 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 가능